



## 날 살려준 박동기

하트 리듬 희망 장려상

조 O 경

저희 아버는 05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고 그 뒤 잘 관리 하고 있었는데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심방세동이 생겼습니다. 또 심장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에 우리 가족모두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는데 또다시 배신하는 아버의 심장이 너무 미웠습니다.

로봇도 아니고 기계를 심장에 넣는다고 하니 또 큰일 나는건아닌가 기계가 안에서 망가지면 어쩌나 기계를 넣고 잘 때 얼마나 불편할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 제가 우리가족이 더 걱정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인터넷 검색으로 몇 날 몇 일 보내는 사이 아버는 더 숨차하시고 어지러움을 자주 호소하시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과 면담을 통해 안심시켜주시는 말들과 힘이 되게 해주시는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며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저를 설득시켜주셨습니다. 아버는 당연히 의사선생님 말을 들으시곤 그게 맞다고 불편함은 내가 감수하겠노라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제 몸도 아닌데 너무 오바 했나 싶었지만 이 정도 걱정은 보호자로서 누구나 다 하겠지 내가 유난인건 아니겠지 자위하며 시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장이 우리를 배신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너랑 같이 가겠다 말이죠. 이제 박동기라는 친





구를 넣어줬으니 이제 우리아빠 좀 잘 도와줘 너만 믿는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아빠를 수술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한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배신하지 말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로하면서 기다린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다 하기도 전에 시술은 빨리 끝났고 아빠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셨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갖고계신 심방세동이 워낙 갑자기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아빠는 증상이 없다고 하지만 뇌졸중의 위험이 있어서 부정맥 약을 꾸준히 먹어줘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박동기만 넣으면 될 줄 알았지만 약은 끝나지 않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복용할 약이 많을수록 돈도 많이 들고 간도 안좋아지는 것 같고 걱정인형인 저는 또다시 걱정을 반복하던 중 박동기에 부정맥을 없애주는 기능이 있는데 한 번 해보자는 얘기를 듣고 내심 걱정 반 기대 반 결과를 보았는데 이게 웬일 박동기가 부정맥을 멈춰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동기는 심장이 안될 때 뛰게 해주는 줄 알았는데 부정맥도 멈춰주고 그래서 부정맥 약도 줄었다고 이게 웬일인가요 그때 그렇게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아빠와 가족들을 걱정에 빠뜨렸던 시간이 너무 미안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박동기가 잘 일해주어서 부정맥이 오래가지 않고 잘 멈춰주고 지속시간도 짧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형의 기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었구나 아빠의 심장과 친해졌구나 너무 고마워 박동기야! 그 기능을 가진 장비를 선택해서 넣어주신 교수님도 고맙고 장비회사도 고맙고 세상이 다 고맙더라고요. 벌써 5년이 지나지만 아직도 잘 도와주는 박동기 덕에 약값도 줄이고 약도 줄어들고 우리가족의 걱정도 줄었습니다. 아직 박동기를 모르는 부정맥 환우분들 겁내지마시고 심장에 친구를 만들어주는건 어떠신가요 !

